1. 서양철학사 입문용

어떤 공부를 하시던 결국엔 철학을 공부한다면 한번은 입문 공부용+사전용으로 서양철학사를 몇 권 읽어두시는 게 좋은데, 이게 처음 시작하는 분에게는 가장 적합할 듯 하네요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30604005

이게 일단 최고고요,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보는 힐쉬베르거(이문), 슈퇴릭히(분도), 램프레히트(을유) 혹은 러셀(집문당)의 서양철학사도 무난하지요, 그리고 신부 철학자 코플스턴도 많이 봅니다. 검색창에 쳐보시길.

그리고 데카르트에서 칸트 혹은 헤겔에 이르는 근세 혹은 근대철학사는 서광사 샤하트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30610196

근대독일철학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30610080

혹은 이게 좋겠네요. ? 저도 안 읽었지만 언제 한권 사보아야겠네요 ...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57331859

그리고 추천할만한 철학의 입문서는 존 호스퍼스의 <철학적 분석입문>인데 절판이군요 ...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87374017

그 다음은 도올 김용옥의 <논술과 철학강의>인데, 특히 2권을 꼭 보세요. 제일 먼저 철학을 시작하는 분이라면 이 책을 강추합니다. 1-2권 다 꼭 읽어보시길. 조만간 홍대 앞 대안연구공동체(=파이데이아)에서 강독을 해볼까 하는데, 아직은 미정입니다.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82643028

그리고 철학사로서 서광사(이 출판사에서 나온 책은 다 학술적으로 인정받는 국내 최고의 철학 전문 출판사입니다.. 기억해 두세요.)에서 나온 쿠르트 프리틀라인의 문제가 달려있는 서양철학사도 추천(이하 위에 나온 책들도 있지만 링크를 걸어서 다시 소개한 것이니 그냥 한 번 더 보시기를).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30604005

그 외 많이 보는 서양철학사 책들은 대충 다음을 추천해드립니다. 우선 램프레히트 철학사,

은퇴하신 고 서울대 김태길 선생님이 번역하셨군요...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32471401

전공으로 공부하거나 대학원 입시를 준비 중이라면, 역시 힐쉬베르거의 서양철학사 ...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73340719

혹은 슈퇴릭히의 세계철학사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41971403

수준 높은 비판적 교양으로 읽고 싶다면 버트런드 러셀의 서양철학사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32471541

보다 쉽게 읽고 싶은 입문으로는 역시 러셀의 서양의 지혜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30600107

러셀의 <철학이란 무엇인가> 혹은 <철학의 제문제>(앞의 책과 같은 책인데 번역본 제목이 다릅니다)는 아주 전문적인 책이니 초보라면 비추...

그리고 이 책을 강력 추천합니다. 꼭 보시길.

2. 그리스/로마 철학+윤리

스토아학파 에픽테토스의 <엥케이리디온>인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링크는 다음입니다.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72913502

기왕 소개해드리는 김에 스토아학파와 늘 따라다니는 그들의 반대자 에피쿠로스의 <쾌락>도...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32010250

기왕 적는 김에 서양철학사 고대 그리스 편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아래에서는 이를 위해 고대 그리스 문화 관련 국내 번역서 및 저작 중심으로 간단한 참고문헌 리스트를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우선 고대 그리스 역사는 사실 너무 많은 데 어린이나 청소년 용 책은 예외로 하고 나머지

어느 것이나 다 보셔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 철학사도 온갖 각종 서양철학사의 앞부분에 예외 없이 나와 있어 어느 것이나 보셔도 상관없지만, 인터넷 서점 등에서 역시 고대그리스 철학만 따로 나온 책들을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특히 초보자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명저는 다음입니다.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30606121

또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단편 모음>도 명편집서로서 아주 강추입니다.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57330631

그리고 그리스 문학에 관한 입문서도 너무 많은데 다음 <희랍문학사>가 좋은 듯합니다.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92132093

그리고 희랍 윤리학 입문서로는 다음이 단연 가장 좋습니다.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30625525

그리고 희랍 신화 등등도 너무 많은데 어린이, 청소년 용을 제외하면 반드시 그리스어 원어에서 번역한 책들로 구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로마사에 관련된 시오노 나나미 등의 책은 그리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 유명한 <블랙 아테나>도 대중적으로는 인기가 높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는 조금 논쟁적인 혹은 문제가 있는 치우친 책으로 평가되는 듯합니다. 또 다른 이런 논쟁적인 책으로는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관한 I.F. 스톤의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논쟁적이지만 시간이 되시면 이렇구나 하고 한번 보실 만은 한 것 같고요, 더군다나 최근 새로 나온 번역본은 역자가 그리스철학을 전공한 편상범 선생님이라 믿음이 가고요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90854679

일반적으로 그리스 철학을 이해하시고 싶다면 역시 정통인 플라톤의 저작들을 읽어야 하는데 중요한 점은 반드시 그리스어 원전에서 직접 번역한 책을 사야하며, 일어 영어 중역본을 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점입니다. 학자들 사이에 통용되는 이견이 없는 좋은 플라톤 번역본들은 다음의 역자들 혹은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입니다. 우선 위 <희랍철학입문>을 번역하셨고 성균관대에 계셨던 박종현 선생님의 번역들은 최상급입니다.

http://www.aladin.co.kr/Search/wSearchResult.aspx?AuthorSearch=박종현@70833&BranchType=1

그리고 고대 그리스철학 전공자들이 내는 정암학당 <플라톤 전집>은 최고입니다.

http://www.aladin.co.kr/shop/common/wseriesitem.aspx?SRID=12025

한길에서 대부분 나온 플라톤 김태경 번역도 좋습니다.

http://www.aladin.co.kr/Search/wSearchResult.aspx?AuthorSearch=김태경@7697&BranchType=1

광의의 고대 그리스 문학+철학 책으로는 천병희 선생님의 번역이 정통성을 인정받고요

http://www.aladin.co.kr/Search/wSearchResult.aspx?AuthorSearch=천병희@44331&BranchType=1

그외 아리스토텔레스의 책들은 다음 링크에서 천병희의 번역, 그리고 전공자들이 그리스어 옮긴 것들, 그리고 출판사 기준으로 이제이북스, 서광사, 궁리, 한길사, 길, 리젬에서 나온 그리스어 원전에서의 번역들

http://www.aladin.co.kr/Search/wSearchResult.aspx?AuthorSearch=아리스토텔레스@24866&BranchType=1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 책으로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91290094

에픽테토스는 이 책으로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72913502

에피쿠로스는 이 책으로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32010250

보셔야 합니다. 이 책들만 해도 적어도 몇 년은 보실 수 있는 분량이 되어 버렸네요... 역시 소년이노 학난성인가요 ...

3. 칸트

그리고 물론 칸트를 읽어 두시는 게 나중에 뭘 해도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일단 3비판서를 읽으셔야 하는데 이 세권에 2-3년 정도 잡으면 다 읽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π 판본은 아카넷에서 나온 서울대 백종현 선생의 <순수이성비판><실천이성비판><판단력비판>을 읽으시면 됩니다. 문학 전공이신 분들의 경우라면 사실은 <판단력비판>을 읽어야 하지만 앞의 두 권을 모르면 이게 안 읽힙니다. 저도 언젠가 이 칸트의 3비판서를 읽는 모임을 하나 해서 한 2-3년 꾸준히 읽고 싶은데 아직은 그냥 생각만이고요...

그리고 아래는 역시 유튜브에서 우연히 발견한 임마누엘 칸트송인데, 누가 이런 노래도 다 만드는군요 ... 그런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말 번역이 없는 것이 너무도 아쉬울 정도로 잘 만들었네요. 이 노래 하나만 외우면 칸트 철학 공식은 다 외우는 듯하네요... 노래도 좋으니 한번 들어보시길!

http://www.youtube.com/watch?v=rzpL_5CI0WQ

4. 비트겐슈타인

일전에 비트겐슈타인의 책들을 추천 부탁하셨는데 아래입니다. 기본적으로 비트겐슈타인의 책은 아래 책세상 판 선집을 읽으면 끝납니다.

http://www.aladin.co.kr/shop/common/wseriesitem.aspx?SRID=4715

특히 1권 보통 WI 이라 칭하는 초기의 <논리철학논고>(=그림 이론)와 후기 WII 라 불리는 4권 <철학적 탐구>(=언어게임 이론)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린비에서 진중권씨가 번역한 것, 서광사(=우리나라 철학출판사들 중 가장 권위 있는 알아주는 전문 출판사, 꼭 기억해두시길)에서 나온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영철 선생님이 번역한 위 책세상 판이 전공자들이 보는 우리말 정본일 겁니다.

5. 니체 관련

니체 저작 관련 판본은 반드시 책세상 니체 전집을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니체의 모든 책들이 다 중요하지만 푸코와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것은 <도덕의 계보>입니다(니체입문과 관련해서는 말미의 소개 글을 보시길).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70133089

니체의 <비극의 탄생>을 정리하다 보니 고대 그리스 문화나, 철학, 혹은 문학, 신화에 대한 공부의 필연성을 느끼게 되는데요,

니체 관련 사이트인데요, 니체의 책들은 저작권 기간이 끝났는데, 특히 우리가 보는 콜리와 몬티나리 판은 고맙게도(!) 영어와 독어로 인터넷에 전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http://www.nietzschesource.org/

그리고 니체 전집을 출판한 독일의 데 그루이터의 니체 관련 페이지입니다.

http://www.degruyter.com/search?q=nietzsche&searchBtn=Search

그리고 아래는 유튜브에서 발견한 니체 비디오인데 진본 여부 논란이 있지만 여러 정황으로 실제일 수도 있는 듯 해요. 아시다시피 이 시기는 이미 니체가 병으로 정신적 붕괴가 일어나 지적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망 직전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비디오의 옆줄에 융, 러셀, 프로이트, 하이데거, 푸코 등등의 쟁쟁한 사상가들이 니체에 대해 말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Fzp7iCaWNvE&feature=related

* 보너스 - 경향신문 21세기 사상지도: 니체 편(이정우)

“니체를 더 알고 싶다면, 니체의 전집으로는 지오르지오 콜리(Giorgio Colli)와 마치노 몬티나리(Mazzino Montinari)가 편집한 독일어판 니체 신판전집을 보는 것이 좋다. 한글본으로는 <니체 전집>(책세상)과 <니체 전집>(청하)이 나와 있다. 니체에 대한 꼼꼼하고 상세한 독해로는 하이데거의 <니체>(박찬국 옮김/길)가 있다. 하이데거의 연구서는 문헌학적으로 훌륭한 것이지만 니체를 보는 시각 자체는 일면적이다. 니체를 근대 철학의 완성자로 보면서 그를 넘어서고자 하는 저작이다. 니체를 파시즘의 선구자로 보는 해석과 관련해 여러 논쟁들을 낳기도 했다. 들뢰즈의 <니체와 철학>(이경신 옮김/민음사)은 하이데거와 정확히 대조를 이루는 저작이다. 20세기 후반에 ‘니체 르네상스’를 몰고 온 이 책에서 들뢰즈는 니체를 현대 철학의 초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들뢰즈의 이 저작을 분기점으로 현대 니체 연구가 봇물을 이루었으며, 그 중에서 특히 클로소프스키의 <니체와 악순환>(조성천 옮김/그린비)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 고병권의 <니체, 천개의 눈 천개의 길>(소명출판), 백승영의 <니체,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책세상)은 니체의 철학 전체를 잘 해설해 주고 있다. 이정우의 <신족과 거인족의 투쟁>(한길사)은 서구 존재론사에서의 신족(플라톤주의)과 거인족(반플라톤주의)의 투쟁을 다루고 있으며 니체를 거인족의 선구자로 해석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181946245&code=960100